

손흥민의 포효, 6월에 볼수 있을까

힘 얻는 EPL '6월 마지노선' 론...재개 못하면 '시즌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멈춰 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시즌 재개 가능성이 점차 열리고 있다.

영국 방송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과 일간지 가디언 등 영국 매체들은 '6월 마지노선' 론을 주장하는 EPL 구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1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6월 30일까지 2019-2020시즌을 마치지 못한다면 재개 시도를 접고 시즌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 언론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열리는 구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런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PL 구단 대표자들은 리그가 중단된 뒤 매주 금요일 화상회의를 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구단들은 코로나19가 영국 전역에서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리그 재개를 향한 희망을 품어왔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6월 안에 리그를 재개해 각 팀이 한 주에 2경기씩을 치러 '5주 속성'으로 2019-

"5주 속성 시즌 마치고" 주장 속

재개 가능성은 점차 열려져

리버풀 우승 자격 갑론을박

오늘 구단 대표자 회의 주목

2020시즌을 마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회의의 앞두고는 구단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6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EPL 구단주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계약 만료로 상당수 선수가 계약 만료로 떠나) 팀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 강등 팀과 유럽 클럽대항전에 나갈 팀을 정하는 건 공정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최근 이런 혼란을 해소

하겠다는 6월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의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 대책의 강제성을 확보할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구단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짜내놨자 코로나19라는 압도적인 적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점도 '6월 마지노선' 론에 힘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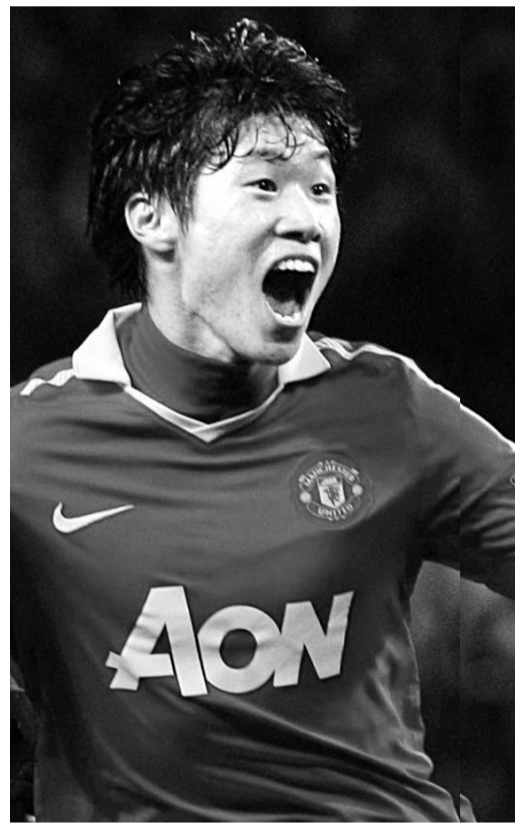
스카이스포츠는 "어차피 정부가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리그 재개를 권고해야만 2019-2020시즌을 다시 진행할 수 있고, 여름 뒤 시즌을 재개하더라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구단들은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재개 없이 리그가 취소된다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강등팀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력 우승까지 단 2승만을 남겨둔 리버풀의 '챔피언 자격'을 인정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웨스트햄 원정에서 첫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아시아 역대 최고 '월드컵 영웅'

AFC 전문가·팬 투표 1위

2위 케이힐·3위 알 자베르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39·사진)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월드컵 영웅'으로 선정됐다. 박지성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전문가와 팬 투표를 종합해 16일 발표한 '아시아의 월드컵 영웅'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AFC는 이달 초 박지성, 사미 알 자베르(사우디 아라비아), 알리레자 베이라반드(이란), 팀 케이힐(호주), 혼다 게이스케(일본) 등 5명을 정한 뒤 이들 중 최고를 뽑는 온라인 팬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순위를 정했다.

전체 결과 중 25%가 반영된 팬 투표에서는 베이라반드, 혼다, 알 자베르, 박지성, 케이힐의 순서였으나 전문가 분석에서는 거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박지성이 첫 손에 꼽혔고, 케이힐, 알 자베르, 혼다, 베이라반드 순이었다.

종합 순위는 1위 박지성, 2위 케이힐, 3위 알 자베르, 공동 4위 베이라반드와 혼다였다.

전문가 패널로는 일본과 카타르, 마르세유(프랑스) 등 감독을 지낸 필립 트루시에(프랑스), 한국 대표팀과 수원 삼성에서 코치로 일했고 이란 감독 등을 역임한 압신 고티비(이란계 미국인), 태국과 라오스 대표팀 등을 이끌었던 스티브 다비(잉글랜드)가 참여했다.

트루시에 감독은 AFC 홈페이지에 실린 평가에서 "모두가 자신의 나라에서 큰 임팩트를 남긴 선수들이고,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면서 최고는 박지성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타이틀을 차지한 점이나 한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끈 경력 등으로 볼 때 박지성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미드필더로서 팀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다

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트비 감독도 "불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지 않았던 박지성의 질주는 한국을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역동적인 팀으로 만들었다. 2006년 월드컵에서도 결승에 오를 수 있는 팀이던 프랑스를 상대로 골을 넣어 한국에 승점을 안겼다"고 호평했다.

다비 전 감독도 "박지성은 맨유에서 뛰던 아시아 축구 선수자다"라며 "놀랄 만큼 뛰어난 선수이며, 팀을 위해 프로다운 기량을 보였다"고 극찬했다.

박지성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0 승리를 이끄는 결승 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하며 '4강 신화'에 앞장서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로 우뚝 섰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유럽의 강호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끌어내는 동점 골을 폭발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도 그리스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득점 포를 가동하며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연합뉴스

"라바리니 감독과 올림픽 준비" 대한배구협회, 계약 연장 논의

"한국 선수들과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싶다"는 스타파노 라바리니(41) 감독의 꿈은 유효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은 2020년 7월이 아닌 2021년 7월에 열린다.

대한배구협회는 라바리니 감독과의 '계약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 라바리니 측도 계약 연장에 긍정적인 태도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라바리니 감독과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탓에 모든 국제대회가 연기된 터라, 구체적인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계약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협회는 라바리니 감독 체제로 2021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라바리니 감독과도 꾸준히 연락한다"고 밝혔다.

라바리니 감독의 국내 에이전시도 "현재까지 계약 연장에 악영향을 끼칠 부정적인 이슈는 없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돼 상황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라바리니 감독도 (2021년) 한국 여자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연경, 중국 베이징서 영입 제의 받아

역자시바시와 5월 계약 만료

유럽·중국 리그 모두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배구 여제' 김연경(32·타키 역자시바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탓에 유럽의 여자프로배구 리그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는 중인 중국 리그가 김연경의 영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월드오브발리는 16일 브라질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리그의 베이징이 김연경에게 영입 제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김연경의 중국 리그 복귀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연경의 에이전시 인스포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 문제로 여러 리그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금은 계약에 관해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연경은 2018년 5월 역자시바시와 2년 계약했

다. 올해 5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코로나19 탓에 타키리그는 중단했고, 김연경은 15일 귀국했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거취 문제도 결정할 예정이다.

김연경은 2017년 5월 중국 상하이와 계약해 1시즌 동안 뛰었다. 중국리그는 유럽보다 경기 수가 적고, 한국으로 오가기도 편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리그'를 선호한 김연경은 2018년 5월에 다시 타키로 향했다.

현재 세계 여자프로배구 시장은 무척 어수선하다.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유럽 리그가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재정적인 안정감을 우선순위로 올리면 중국 리그의 매력도 커진다. 중국 리그에서 뛰면 2021년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도 한결 수월하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김연경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레프트로 평가받는다. 곧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김연경의 거취에 유럽, 중국 리그 모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키에 머물던 김연경이 지난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우즈 골프 빅매치 환영" 플로리다 주지사 유치 희망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 사태 속에서도 필 미켈슨과 타이어 우즈의 골프 빅매치 유치에 나섰다.

16일 골프채널에 따르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코로나19로 모든 스포츠가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갖지 못했다. 미켈슨과 우즈의 골프 대결을 보고 싶다"며 대회 유치 희망을 밝혔다.

2018년 열렸던 미켈슨과 우즈의 매치 플레이 대결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5월에 플로리다주 개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주는 4월 30일까지 '집에 머물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스포츠나 집회가 금지된 상태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 대결이 관중 없이 사회적 거리 지키는 등 보건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TV로 중계된다면 대회 개최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픈 더 도어
3관	1917, n번째 이별중, 인비저블맨
4관	서치 아웃
5관	라라랜드
9관	오픈 더 도어, 로건, 더 터닝
7관 씨네캐슬	1917, 서치 아웃, 라라랜드, 데드풀
8관 씨네캐슬	오픈 더 도어, n번째 이별중, 윈 데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벤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